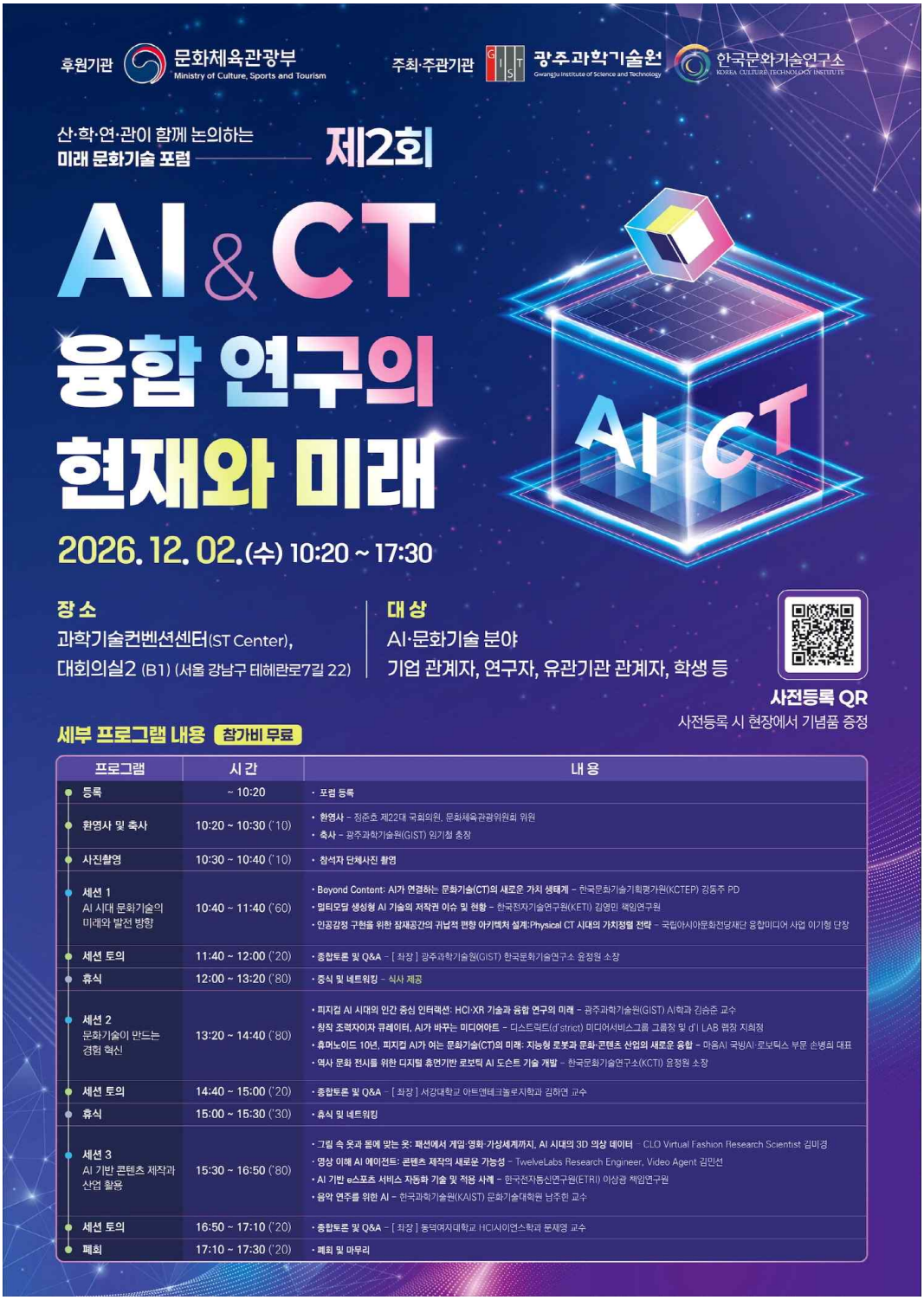
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,
AI·문화기술 융합 포럼 개최

- 12월 2일(수) 서울서 제2회 'AI&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' 포럼... AI·문화기술 융합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적용 사례 공유
- CLO·트웰브랩스·디스트릭트·마음AI 등 산업계와 GIST·KAIST·ETRI·KETI 등 산·학·연 전문가 11명 발표... 세션별 종합토론 진행



▲ '제2회 AI&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' 포럼 포스터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윤정원)가 **오는 12월 2일(수)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**(ST Center) **지하 1층 대회의실2에서 '제2회 AI&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' 포럼을 개최**한다고 밝혔다.

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**산·학·연 전문가 11명이 인공지능**(AI)**과 문화기술**(CT)**의 융합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**한다. 각 세션에서는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.

이번 포럼은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을 넘어 공연·전시·스포츠·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, **관련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의 경험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**됐다.

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포럼이 학계와 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면, 올해는 ▲㈜클로버추얼패션(CLO Virtual Fashion) ▲㈜트웰브랩스(TwelveLabs) ▲㈜디스트릭트(d'strict) ▲㈜마음AI 등 **기업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**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기술과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.

행사는 정준호 국회의원(전남광주 북구갑·문화체육관광위원회)의 환영사와 임기철 GIST 총장의 축사로 시작해 ▲**AI 시대 문화기술의 미래와 발전 방향** ▲**문화기술이 만드는 경험 혁신** ▲**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산업 활용**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.

첫 번째 세션 'AI 시대 문화기술의 미래와 발전 방향'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화기술의 변화와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.

강동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(KCTEP) **PD**는 AI가 연결하는 문화기술의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소개한다.

김영민 한국전자기술연구원(KETI) **책임연구원**은 텍스트·이미지·영상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다루는 멀티모달 생성형 AI의 저작권 관련 쟁점을, **이기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융합미디어사업단장**은 물리적 문화기술(Physical CT) 시대에 AI가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'AI 가치정렬' 전략을 발표한다.

두 번째 세션 '문화기술이 만드는 경험 혁신'에서는 AI와 로봇, 확장현실(XR) 기술을 활용한 문화 경험의 변화와 관련 연구 및 산업 사례를 다룬다.

김승준 GIST AI학과 교수(GIST-MIT 인간중심 피지컬 AI 상호작용 연구센터장)는 피지컬 AI 시대의 인간 중심 상호작용과 인간·컴퓨터 상호작용(HCI) 및 확장현실(XR) 기술을 활용한 융합 연구의 미래를 소개한다. **지희정 디스트릭트 그룹장**은 AI가 몰입형 미디어아트 제작 과정에 가져오는 변화를 창작자의 관점에서 발표한다.

손병희 마음AI 국방AI·로보틱스 부문 대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가 문화·콘텐츠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, **윤정원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**은 역사적 인물을 디지털

휴먼(가상인간)으로 구현한 로보틱 AI 도슨트 기술과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.

마지막 세션 '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산업 활용'에서는 게임·영상·e스포츠·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한다.

김미경 클로버추얼패션 연구원은 패션에서 게임·영화·가상세계까지 활용되는 3D 의상 데이터를 소개하고, **김민선 트웰브랩스 연구원**은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식을 발표한다.

이상광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**책임연구원**은 AI 기반 e스포츠 서비스 자동화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, **남주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**는 실시간 음악 인식과 인간-AI 합주 등 음악 연주에 활용되는 AI 기술을 소개한다.

윤정원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"AI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를 넘어 **사람들이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**"며 "이번 포럼이 **대학과 연구기관,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**하고 **AI·문화기술 융합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**한다"고 말했다.

한편, 이번 포럼은 AI·문화기술 분야 기업 관계자와 연구자, 유관기관 관계자, 학생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참가비는 무료이며, 포럼 공식 홈페이지(https://aictforum.github.io)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다.